

발명은 글로벌 기업 경쟁력의 원천



박진홍

현 한국전력공사 기술기획처장
2009년 한전 부신본부 판매계획처장
2006년 한전 송변전처 변전운영팀장

니 혼전사지(日本轉寫紙)社は 인쇄용 용지를 만드는 작은 중소기업이었다. 이 회사의 말단 직원인 오모는 전사지를 규격에 맞게 칼로 자르는 단순한 일을 담당했다. 오모는 칼로 종이를 몇 번 자르고 나면 칼끝이 금방 무디어져서 칼을 강제로 부러뜨려 재사용하곤 했는데 칼을 강제로 부러뜨리는 일은 어렵고 위험한 일이었다. 오모는 자신이 맡은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궁리를 거듭하던 중, 어느 날 우체국 직원이 연달아 붙어 있는 우표를 손쉽게 떼어 내는 것을 보고, 우표처럼 칼에도 쉽게 잘라낼 수 있는 표시선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변칙이는 아이디어를 회사에 보고하자, 회사에서는 이 아이디어를 직무발명으로 채택하여, 곧바로 특허를 출원했다. 손쉽게 잘라내는 커터 칼을 생산하자 상품은 날개 돋친 듯이 팔려 나갔다. 니혼전사지社は 일거에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했고, 오모

는 엄청난 보상을 받은 것은 물론 승진도 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기업이 종업원의 아이디어 창출을 장려하고, 이를 지식재산권으로 권리화하는 기업 경영정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이다.

기업이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개개인의 창의력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발명을 진흥하려는 기업 경영자의 강한 의지와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기업 경영자는 구성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헛되게 버려지지 않도록 직무발명에 대한 다양한 진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발명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은 물론이고, 우수제안자 포상, 발명교육활성화, 발명경진대회 개최, 인사상 가점부여 등을 통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전력에서도 직무발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허왕 선발, KEPCO 발명특허대전 개최, 국제발명전 참가 등 다양한 발명진흥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또한 맞춤형 특허교육 프로그램 시행, 해외 Law-firm 파견 등을 통해 지식재산분야의 사내 전문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결과 지식재산권의 출원건수는 해마다 약 30%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원자력발전과 송배전 분야의 특허 기술은 세계적 수준으로 자부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우리 회사 직원들의 직무발명이다. 이러한 기술들이 UAE 원전 건설사업 수주에 한 몫을 담당했으니 기업 관리자로서 뿌듯함을 느낀다.

지난 20년간 기업들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분석한 미국의 한 대학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술을 중시한 회사는 성장·발전한 반면, 그렇지 못한 회사는 도태되고 말았다고 한다. 특히, CEO가 기술을 중시해야만 회사가 발전할 수 있다.

한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Great Company로 도약하는 것은 CEO의 발명 장려에 대한 강한 의지와 발명을 진흥하는 기업문화를 얼마나 빨리 조직에 정착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창의적인 발명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